

# 제조·수출 중심 경기회복... 재화소비는 '둔화'

###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4월호' 발표... 경기 흐름 부문별 속도차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내수 가운데서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해왔으나 지난 1~3월 민간소비 둔화를 진단했다. 이달에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재화소비를 둔화 진단 영역을 좁혔다. 2월 전(全)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한 가운데, 광공업(3.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4%)은 증가하고 건설업(-1.9%)은 감소했다.

2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4.8%), 기계장비(10.3%), 전자부품(12.5%) 등에서 증가해 3.1% 증가했다. 2월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2.6% 증가, 재고는 전월대비 1.4% 증가,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은 전월대비 -1.4%포인트(p) 감소(110.1%)했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1% 증가한 568억6000만 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5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9.9% 증가했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102%), 반도체(38%), 컴퓨터(25%) 등 7개 품목이 증가했고 이차전지(-23%), 섬유(-14%) 등은 감소했다.

3월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입차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5.0%), 여가(7.4%), 운수·창고(1.6%) 등 대면 서비스업 개선으로 증가했다.

재화소비를 보여주는 2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2.4%)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3.2%), 비내구재(-4.8%)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3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카드승인액(2.8%) 및 합인점 매출액(6.9%)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12.7%) 부진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지난 2월(-15.2%)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3월 물가는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과일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2월과 같은 수준인 3.1% 상승했다.

3월 중 취업자는 2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23.8%), 기계류(6.0%) 투자가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기동률이 72.1%에서 74.6%로 증가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 상승(3.7%) 추세는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2.2%)와 건축공사(-1.8%) 모두 실적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 과장은 "투자자는 1월 건설투자 부진 우려, 2월 부진 가시화, 3월 부진으로 점차 진단이 악화했으나, 4월에는 건설 선행지표 부진으로 축소했다"며 "건설 수주가 좋지 않지만 건설기성이 SOC(사회간접자본) 영향으로 나쁘지 않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고, 선행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부안관광호텔에서 전북4H연합회소속 청년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농협, 청년농업인과 소통의 시간

### 전북4H연합회 청년농업인과 미래 농업·농촌 고민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1일 부안관광호텔에서 전북4H연합회(회장 이지훈) 소속 청년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한 이창완 경제본부부장, 김인순 농신보 전북센터장, 전북농협 각 부서 단장과 청년농업인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정 주제 없이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청년농업인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진출을 위한 자금 문제, 지역 대표 농특산물 개발·육성, 농산물 판로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농업·농촌의 미래인 열정 가득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업, 디지털 크래프트 디자인 워크숍 진행

전북도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퓌팩 365에서 '디지털 크래프트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디지털 크래프트 디자인 워크숍'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다 양한 모양이나 문구를 디자인한 후 메이커 장비를 사용해 제작하는 교육이다.

참여자들의 메이커 장비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메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조각기와 CNC밀링커터기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생일이나 여행 등 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토퍼를 제작하고 다이어리나 노트북 등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다.

첫 번째 교육은 디자인 토퍼 제작으로 17일에 시작되며, 총 10회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메이커스페이스 퓌팩365 홈페이지(www.maker365.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개최

### 4차례 걸쳐 연금개혁 세부 의제 숙의·토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14·20·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5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13·14·20·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난 13일 열린 숙의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토론하며,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된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들이 주축해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



고 참여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 가

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러워 어틀라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해 '다육식물 테라리움', '올마 크리시미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밭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지난 12일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을 방문해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관련 취급시설을 점검했다.

##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화학물질 규제개선 현장 방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12일 완주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한솔케미칼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최근 개정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취급시설을 점검했다.

송 청장은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청취하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